

KIA 감독 공백...뒤숭숭한 호주 전지훈련 출국길

지난해 장정석 단장 해임

올해는 사령탑 수사 후폭풍

진갑용 수석코치 체제로

KIA 타이거즈에 '초대형 악재'가 또 터졌다. 새 시즌을 위한 담금질 무대를 앞두고 사령탑의 직무가 정지됐다.

KIA는 28일 "금품 수수와 관련해 김중국 감독의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2월 1일부터 호주 캔버라에 캠프를 차리고 2024

시즌을 준비하려고 했던 KIA는 새출발에 앞서 대형 악재를 맞았다.

'장정석 단장'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단장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김중국 감독에게 흘러갔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국 감독이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KIA는 27일 면담 자리에서 이를 최종 확인하고 김중국 감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KIA는 지난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는 장정석 단장을 해임했다.

2022시즌 중반 장 단장이 박동원(LG)과의 다년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를 했다는 제보가 있

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구단은 '품위 손상 행위'로 장 단장을 해임했다.

시즌을 앞두고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KIA는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엔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단장에 이어 사령탑이 금품 수수와 연관되면서 '야구 명문' 타이거즈는 자존심을 구겼다. 지난 시즌 5강에서도 탈락하는 등 성적에서도 팬들을 실망하게 했던 KIA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달갑지 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논란 속에서도 김중국 체제로 시즌을 준비해 왔던 KIA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팬들의 실망은 크다.

올 시즌 KIA는 빅리그 폴터이영력이 있는 윌크

로우와 함께 제이스 네일로 새로운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경험을 갖춘 두 투수로 마운드를 강화했고, 신예 투수들을 미국 시애틀에 있는 드라이브라인과 호주리그에 파견하는 등 마운드를 탄탄히 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 시즌 보여줬던 강렬한 타선의 힘도 여전하다. FA와 다년 계약을 통해 지난 시즌 뜨거운 타선의 중심을 잡아줬던 베테랑 김선빈과 최형우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성범은 '주장' 완장도 맡는 등 타선 전면에 서게 됐다.

투-타의 밸런스로 올 시즌 복병으로 꼽히는 KIA지만 다시 한번 외부에서 악재가 발생했다.

캠프 출발을 앞두고 진갑용 수석코치 체제로 금

히 전환은 했지만 선수단 내부 분위기를 다지는 게 캠프의 우선 과제가 됐다.

타이거즈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기대했던 성적도 내지 못했고, 프로야구판을 흔드는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구단 이미지가 실추됐다.

문제는 '후폭풍'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구단의 이미지 반전을 위한 내부 쇄신도 필요해졌다.

그라운드가 아닌 그라운드 밖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된 KIA 타이거즈가 어떤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찬호 3억 비 FA 최고 연봉...최지민 200% 최고 인상

KIA 시즌 연봉 협상 마무리

KIA 타이거즈의 2024시즌 연봉 재계약이 마무리됐다. 투-타 '연봉 고과 1위'인 임기영과 박찬호가 각각 2억 5000만원과 3억원에 계약을 했다.

전체 재계약 대상자는 46명으로 24명의 연봉이 인상됐다. 9명은 동결, 13명은 연봉이 삭감됐다.

지난 시즌 64경기에 나와 82이닝(평균자책점 2.96)을 책임진 사이드암 임기영은 1억5000만원에서 66.7% 인상된 2억5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부상투혼'속 130경기에 나와 0.301의 타율을

찍은 내야수 박찬호는 2억원에서 50% 상승한 3억원에 연봉 계약을 끝냈다.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비 FA재계약 대상자 중 팀 내 최고 연봉이다.

프로 2년 차에 '국가대표 필승조'로 발돋움한 좌완 최지민은 223%라는 팀 내 최고 인상률을 장식했다. 최지민은 올 시즌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데뷔 3년 차에 기록한 역대 연봉이기도 하다.

프로 첫해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 8승을 수확한 좌완 윤영철도 연봉이 3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오르면서 200%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세 번째 시즌을 앞둔 내야수 김도영은 5000만원에서 100% 인상된 1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와 함께 김도영은 '입단 동기' 최지민과 함께 나란히 3년 차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차세대 거포' 변우혁은 3500만원에서 2500만원(71.4%) 오른 6000만원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외야수 이우성은 5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연봉이 136% 상승하면서 프로 입단 후 처음 역대 연봉을 받게 됐다.

포수 한준수는 3100만원에서 1900만원(61.3%) 상승한 5000만원에 계약을 끝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수 47명 캔버라·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KIA 타이거즈가 호주 캔버라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2024시즌 도약을 위한 담금질에 나선다.

KIA가 30일 호주로 출국해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캔버라 나라부다 볼파크(Narrabundah Ballpark)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한다. 이후 선수단은 22일 일본 오키나와로 입국해 3월 5일까지 훈련을 이어간 뒤, 3월 6일 귀국한다.

1·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선수 47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말똥' 양현종과 함께 2024루키 조대현과 김민주 등 투수는 22명이 호주로 간다. 포수조는 김태균과 함께 한승택, 주효상, 한준수 등 4명으로 구성됐다.

FA 재계약을 한 김선빈이 버티고 있는 내야에는 이적생 서건창과 고명성 등을 포함해 12명이

참가한다. '주장' 나성범이 이끄는 외야는 8명으로 구성됐다.

KIA는 1차 호주 캠프에서는 기본 다지기에 나선다.

캔버라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한 뒤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인 실전 체제로 돌입해 주전 경쟁을 펼친다.

오키나와에서는 KBO리그 팀들은 일본 야구부트까지 6차례 연습경기도 예정됐다.

2월 25일 킨구장에서 KT를 상대하는 KIA는 27일 일본 야구부트, 28일 롯데와 연습경기를 치른다. KIA는 또 3월 1일 삼성에 이어 3월 3일 롯데, 4일 KT전까지 6번의 연습경기를 통해 '육석 가리개'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지아, 훈신 담은 연기 28일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에서 대한민국 신지아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인 파봉, 프랑스 선수 최초 PGA 투어 우승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마티외 파봉(사진)이 프랑스 선수 최초로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파봉은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 사우스 코스(파72·7765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90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파봉은 2위 니콜라이 호이그르(덴마크)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62만 달러(약 21억 6000만원) 주인공이 됐다.

올해 PGA 투어 신인인 파봉은 지난해 10월 DP 월드 투어 대회에서 한 차례 우승했으며, 지난 시즌 DP 월드 투어 상위권자 자격으로 PGA 투어 2024시즌 출전권을 따낸 선수다.

프랑스 선수가 PGA 정규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파봉이 처음이다.

파봉은 2타 차 선두를 달리던 17번 홀(파4)에서 1.5m 정도 짧은 파 퍼트를 놓쳐 2위 선수들에



게 1타 차로 쫓겼다.

또 18번 홀(파5)에서는 티샷이 병커에 빠지고, 병커에서 친 두 번째 샷은 왼쪽 깊은 러프로 향하는 등 역전패 위기에 놓였다.

약 147야드 정도를 남기고 파봉은 필진 러프에서 몸을 휘청이며 시도한 세 번째 샷을 홀약 2.5m 거리로 보내 1위를 지킬 기회를 맞았다.

이때 1타 차로 추격하던 호이그르는 약 15m 이글 퍼트를 남긴 상황이었다.

만일 호이그르의 이글 퍼트가 들어가면 바로 역

전, 호이그르가 버디를 하고 파봉이 파에 그치면 연장전이 성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호이그르의 이글 퍼트가 빗나갔고, 파봉의 버디 퍼트가 들어가며 파봉의 우승이 확정됐다.

1992년생 파봉은 2017년 DP 월드 투어에 데뷔, 185번째 대회인 지난해 10월 스페인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으나 PGA 투어에서는 올해 세 번째 대회에서 첫 승을 거뒀다.

호이그르는 쌍둥이 형제 라스무스 호이그르(덴마크)와 나란히 프로 선수로 활약 중이다.

라스무스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 중인 DP 월드 투어 라스 알카이마 챔피언십(총상금 250만달러)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 뒤진 2위를 달려 쌍둥이 형제가 같은 날 PGA 투어와 DP 월드 투어를 동시에 제패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봤지만 일단 니콜라이가 준우승으로 먼저 대회를 마쳤다.

일란성 쌍둥이인 둘은 2021년에는 DP 월드 투어에서 2주 연속 번갈아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운 바 있다.

김성현은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 공동 50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FC의 콜업을 받은 금호고 출신의 안혁주(왼쪽)와 문민서가 태극 치앙마이에서 프로 데뷔를 위한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인의 패기로 승리 만들겠다"

광주FC '새피' 문민서·안혁주

"적응하고 많이 배우겠다"

치앙마이에서 프로 데뷔 준비

"신인의 패기로 광주FC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팀 적응을 끝낸 두 사람은 새로운 축구 배우기라는 또 다른 과제를 풀고 있다.

광주FC가 태극 치앙마이에서 2024시즌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위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광주는 뜨거운 시즌을 위해 '새 피'도 수혈했다.

광주 U-18 금호고 출신인 문민서(MF·19·단국대)와 안혁주(MF·19·고려대)가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축구 명문 금호고에서 함께 뛰며 2022년 제23회 백운기 고등축구대회,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고등축구대회 우승을 합작했다. 대학에서 1년을 보낸 이들은 광주의 콜업을 받으면서 프로 무대에서 재회했다.

아직은 어린 선수들이지만 '적응'이 이번 전지훈련의 첫 번째 과제였다.

안혁주는 "프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프로 무대를 경험하게 돼서 좋았다. 이제 선배없이 다 경쟁이다. 경쟁을 해야 한다"며 "해외 전지훈련은 처음이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힘든 것도 많았다. 이정호 감독님의 축구를 배우기는 단계라 많이 혼나기도 한다. 안 혼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웃음). 그래도 이제 광주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이야기했다.

문민서는 "프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설레기도 했고, 기대가 됐다. 빨리 적응해야겠다는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첫 주에는 긴장 많이 했는데 지금은 편안해졌다"며 "아직 감독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는데 공수전환 트래지션에 많이 혼나는 것 같다. 마음 단단히 먹고 왔다"고 프로 첫 동계 훈련 소감을 밝혔다.

팀 적응을 끝낸 두 사람은 새로운 축구 배우기라는 또 다른 과제를 풀고 있다.

안혁주는 "프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프로 무대를 경험하게 돼서 좋았다. 이제 선배없이 다 경쟁이다. 경쟁을 해야 한다"며 "해외 전지훈련은 처음이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힘든 것도 많았다. 이정호 감독님의 축구를 배우기는 단계라 많이 혼나기도 한다. 안 혼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웃음). 그래도 이제 광주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이야기했다.

문민서는 "프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설레기도 했고, 기대가 됐다. 빨리 적응해야겠다는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첫 주에는 긴장 많이 했는데 지금은 편안해졌다"며 "아직 감독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는데 공수전환 트래지션에 많이 혼나는 것 같다. 마음 단단히 먹고 왔다"고 프로 첫 동계 훈련 소감을 밝혔다.

팀 적응을 끝낸 두 사람은 새로운 축구 배우기라는 또 다른 과제를 풀고 있다.

안혁주는 "내가 고3때 이정호 감독님 처음 오셔서 경기 봤었다. 앞선 광주와는 모든 게 다른 것 같다. 훈련을 대하는 태도나 훈련 전후 생활하는 것까지 모두 다른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며 "테스트 왔을 때도 형들한테 많이 듣기도 했고, 맨체스터 시티나 브라이튼 경기 많이 보고(임)지성이 형 플레이하는 게 계속 보면서 공부하고 왔다"고 말했다.

문민서는 "이정호 감독님의 광주는 짜임새부터 다르다. 경기를 보더라도 선수들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 이정호 감독님의 전술을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초체력 부분도 중요할 것 같다. 팀포나 피지컬 자체가 달라서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프로의 다른 차원을 직접 몸으로 확인하면서 '성장'을 각오하고 있는 두 사람. 선배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서 기다렸던 순간을 맞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태극 치앙마이·김여울 기자 wool@